

“부활, 생명으로의 부름”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직’과, 교회의 생명과 성덕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생활’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소 주일’입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소(聖召)’는 ‘거룩한 부르심’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모든 이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죄로 멀어진 인간을 다시 당신 품으로 모아들이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그 어떤 것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간절한 외침’이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생명으로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소를 직무에만 연관지어 사제나 수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부르심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단순한 ‘무지’는 부르심에 대한 외면과 응답에 대한 망각을 가져오며, 망각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무관심은 생명과의 단절을, 단절은 우리의 삶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하느님의 부르심을 지나치지 않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

심에 대한 자각’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안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이들에게 강한 사랑과 열정을 보이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 자신은 하느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삶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찾고 내면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쁨으로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여 행하고 더욱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음과 몸과 정신과 힘과 영혼을 다해 응답하시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첫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부활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열매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은 부활, 즉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마음을 다하여 귀 기울입시다.

이건희(안드레아) 신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는 요즘 누구를 찾아가니까?

하고 있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 좋겠는데, 꼬이고 꼬입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니까? 혹시라도 이상야릇

한 분위기의 철학관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시험 철이 다가오면 어디를 찾아가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바위덩어리를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승진을 앞두고, 선거철을 앞두고 어디를 찾아가니까? 결코 기대서는 안 되며, 절대로 찾아가서는 안 될, 그리고 언젠가 허망함을 느낄 ‘유력인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며, 잘 못 찾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동안 좋다는 곳, 정말 대단하다는 사람, 참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스승, 효험이 있다는 곳... 세상 곳곳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모두 부질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만이 내 존재 전체를 내어맡겨도 괜찮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찾아가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쾌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한한 것, 잠시 지나가는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한 것,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데나 찾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의 위로 정도겠지요. 감언이설이겠지요. 거짓된 공약이겠지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오류투성이입니다. 괜히 잘못 찾아갔다가는 패가망신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가갈 곳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양승국 신부

청소년을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저희로 하여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주님,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본 당 소 식

◎ 5월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단체장, 구역장도 참석바랍니다.

◎ 신앙특강 안내

▶초청강사: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한국거주)

▶일시: 5월 2일(부활 제 5 주일) 오후 3시

▶장소: 본당

▶비고: 주일 미사 후 천교식사가 있습니다.

특강 후에 바오로의 딸 수녀회에서 영문 도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5월 : 키치너

6월 : 브랜포드

7월 : 캠브리지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일 시 ; 4월 30일(금) 오후 7시

▶장 소 : 한택중 형제택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재정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헌금 전산화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금 내역이 필요한 교우는 재정분과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옥현 형제 : tri-best@rogers.com)

◎ 본당 홈페이지에 오늘의 말씀 강론 동영상
(영어)과 주일 성가곡이 올려있습니다.

(www.kwpaul.com)

◎ 안내/헌금 담당

▶5월 : 워털루 4 구역

▶6월 : 캠브리지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세미나 (영어로 진행됩니다)

일 시 : 4월 17일 ~ 5월 31일 매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장 소 : 본당

비 용 : \$20

문 의 : 한택중 총무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18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05.00
교 무 금 : \$ 120.00 161(20), 169(100)
감사헌금 : \$ 10.0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5 (\$5810.00)
합 계 : \$ 73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17호

2010. 4. 25.

성소 주일

해설 최 우석

차주 해설 신 계연

성 가

입 당 (19) 주를 따르리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성 체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되 장 (131) 찬미 노래드리자

화 답 송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분께
서는 언제나 선한 모습을 보여 주십니
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 착한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꽃과 열매라면,
우리는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양분’을 받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독 서

4월 25일

강석균

강명숙

5월 2일

김영규

이윤경

봉 헌

4월 25일

한택중

한재희

5월 2일

강석균

강명숙

복 사

4월 25일

최예슬

강수현

5월 2일

구하람

노승범